

2024 Jul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6월 동향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속 미국 고용과 주요경제지표의 다소 엇갈린 등락 속에서도 소폭 냉각 조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락 영향 받았으나 매파적 연준 기조 지속 등이 하단을 제한한 형국

미국의 4월 PCE 물가 지표의 우호적 해석 영향과 고용 냉각 조짐 반영 속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인하 시행 결과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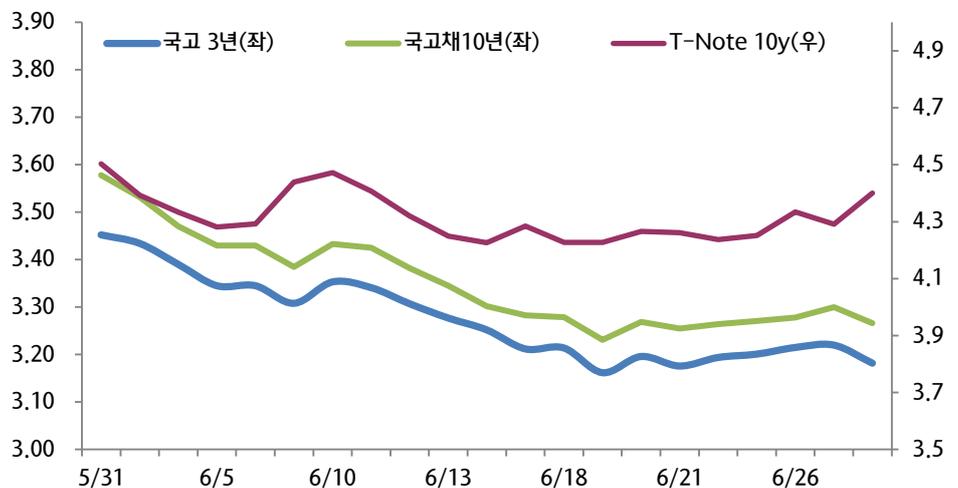
5월 타이트한 미국 고용 흐름에도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스탠스 속 대내적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세 지속

미국 경제 지표의 엇갈린 방향성 영향 일부 반영 속 연준 위원의 매파성향 언급 등으로 상승 흐름 전환했으나, 월말 PCE 대기 등 관망 속에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 월초, 미 4월 PCE 지표의 우호적 해석 영향 및 고용 냉각 분위기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여기에 유로존과 캐나다 금리 인하 피벗 시행 등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월 초, 4월 미 PCE지표의 시장 예상 부합 속 연준 피벗 가능성 부각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노동부 4월 고용보고서 상의 구인 건수 감소 등도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 이어, 캐나다와 유로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에 따른 영향도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대내적 수급 요인도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친 형국
- 중반, 5월 타이트한 고용과 FOMC의 매파적 점도표 변경에도 CPI 하락과 파월 의장의 완화적 회견 및 소매 판매 지표 부진 속 외국인 국채 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형국
 - 중반, 5월 미국 고용의 엇갈린 시그널 표출에도 비농업 고용의 타이트함 이어진 점 금리인하 기대를 약화. 하지만 파월 의장의 완화적 회견과 이어진 CPI 하락 추세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 지속
 - 여기에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경기 흐름 약화 가능성 반영과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 언급 등에 따른 영향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진 국면
- 후반, 고용지표 방향성처럼 미국 경제 지표도 엇갈린 방향성 제시한 측면이 있음에도 주요 연준 이사의 매파적 기조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 후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 후반, 미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PMI 지표 등이 견조했던 반면,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고용과 마찬가지로 엇갈린 경기 신호를 제시하면서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
 - 하지만, 주요 연준 이사의 금리인하 부정적 인식 등 매파 성향 속 호주, 캐나다 5월 CPI 시장 예상 상회 등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우려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연동 후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6월 평균
국고채(3년): 3.27%
T-Note(10년): 4.3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7월 전망

대내적 물가 요인 등을 고려 시, 국내 금리 인하 기대는 낮은 국면이지만 연준에 대한 시장 금리인하 기대와 유로존 및 주요국가 선제적 인하 기조 선회 등이 소폭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3.38	3.20 ^(F)	3.15 ^(F)

미 물가 감소가 더디지만 하락 추세 유지하는 영국. 여기에 연준 매파적 점도 표에도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측면과 시장 기대감이 다소 강하다는 점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국의 선제적금리인하 속에 유럽 정치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ECB의 추가 인하에 대한 매파 성향 등을 고려 시 유럽 요인은 금리 향방을 모호하게 할 전망

7월 국고채(3Y) 금리는 3.1%~3.35%상

- 최근 미국 물가 지표 하락 추세에도 더딘 속도 등에 따른 연준내 매파 성향 지속은 유지될 전망. 하지만,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장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는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 5월 CPI, PCE 지표 감소세가 더디나 하락 경로를 이어가는 측면은 시장의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미국채 금리 하락 및 국고채 금리 동조화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2% 물가 달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정책 판단을 하려는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 성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점도표가 다소 매파성향으로 전환된 측면은 금리 하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캐나다, ECB 등의 금리 인하 후,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탄력 받는 양상. 여기에 최근 유럽 정치 불안 노이즈 확대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ECB가 추가 인하는 지표 확인이라는 매파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금리 방향성에 다소 상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ECB와 캐나다 등 주요 국가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영향 속에 최근 불거진 유럽 정치 불확실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하지만 ECB가 추가 금리인하 부분에 대해 지표 확인 후라는 전제 제시 언급의 매파 성향을 내비친 측면 등이 글로벌 금리 하락 기조를 다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수출 흐름의 견조함 속에 대외 인플레이션 수입에 따른 국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 지표 둔화 속 내수 부진 국면 등을 고려한 7월 금통위에서의 인하 소수의견 출현 가능성 등은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적으로 수출 경기의 확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환율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입 요인 등으로 대내적 물가 감소세가 더딘 국면. 이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반면, 국내 서비스업 지표 둔화 국면 속에 민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7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 소수 의견 출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시장의 인하 기대를 강화하며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더딘 물가 감소세 속에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매파적 성향 지속 가능성 · 연준의 6월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1회로 매파성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 2회 상존 ·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6월 동향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신중한 스탠스 유지한 연준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의한 주요 통화 약세가 글로벌 달러 강세 자극하며 1,390원대 진입 이후 당국 개입 경계심리와 고점 인식 매도에 상단 제한된 국면

미국 PCE의 시장 전망 부합과 제조업 경기 부진에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완화되며 환율은 하락 출발 후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과 ECB 금리인하가 달러 강세 유발하며 하락폭 반납

- 월초, 예상에 부합한 미 PCE 물가와 제조업 경기 부진에 물가리스크 경계감이 완화되며 환율 하락했으나 미 고용 서프라이즈와 ECB 선제적 피벗으로 인한 강달러 영향으로 재차 상승
 - 월초, 시장 예상에 부합한 미국 4월 PCE물가지수와 5월 제조업 PMI의 기준선 하회로 물가 반등 우려가 일부 완화된 측면이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
 - 그러나 연준보다 앞선 ECB의 25bp 금리인하 결정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한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움직임이 글로벌 강달러를 견인하며 하락폭 되돌림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양상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횡수 축소와 주요국의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주요 통화 약세 등에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며 1,380원 전후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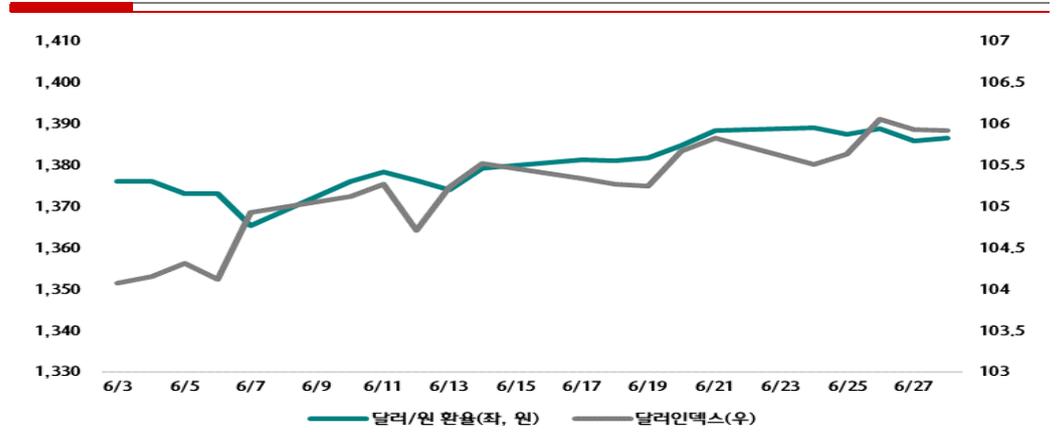
- 월 중반, 미국 CPI 둔화에도 연준 금리인하 전망 횡수 축소와 유럽 정치 리스크 확산 등이 달러 지지력을 더하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 약세의 간접적 영향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중반, 6월 FOMC 점도표의 금리인하 예상 횡수가 1회로 축소된 점이 매파적으로 인식되었으나 미국 5월 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 하회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며 소폭 하락
 -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극우 세력 약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강달러 자극하는 가운데 BOJ,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유지에 따른 엔화 및 위안화 약세 반영하며 1,380원대 등락

글로벌 통화정책 탈동조화와 연준 인사의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이 강달러 지지하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로 1,390원대 안착 시도했으나 당국 경계심리와 고점 인식 매도 물량에 1,380원대 마감

- 후반, 유럽 주요국 완화 기조 선회와 연준 이사 매파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 속 급격한 엔저 동조에 따라 장중 1,390원대 재진입 후 수급상 매도 우위, 당국 경계감에 1,380원대 마감
 - 후반, SNB의 추가 금리인하와 BOE의 도비시한 동결 결정으로 재차 부각된 연준의 피벗 신중론에 달러 강세 압력 가중되며 장중 1,390원대 진입 후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증액 소식에 상승 제한
 - 추가 긴축 여지 남겨둔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과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160엔선을 돌파한 엔화 약세 영향 속 추가 상승했으나 반기말 네고물량 유입과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1,380원대 마감

6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79.9
6월말 달러/원 환율 : 1,376.7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7 월 전망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대비되는 연준 피벗 시점의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며 1,300원대 후반 레인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다만, 당국 경계감 강화 속 상단 인식은 원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1	1,350 ^(F)	1,295 ^(F)

Fed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 유효하나 ECB 등 주요국과의 피벗 시점 및 인하 속도 차가 부각된 측면이 강달러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또한, 아시아 통화 약세 영향과 유럽 정국 불안도 환율 상방 리스크로 작용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세에도 고회율 지속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와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 하단을 지지. 다만,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1,400원 부근 고점 인식은 추가 약세 제한할 요인

7월 달러/원 환율
1,365원 ~1,395원 예상

- 6월 FOMC에서 발표된 매파적 점도표와 경제전망에도 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국 간 금리인하 속도 차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 6월 FOMC의 점도표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조정을 통해 드러난 Fed의 매파 기조와 금리인하 신중론을 견지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선회와 대비되며 달러 강세를 자극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예상보다 둔화된 CPI와 고용 약화시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은 달러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BOJ의 추가 긴축 지연과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이 원화 약세 압력을 더하는 가운데 유럽 정치 이슈 부각이 달러 추가 강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기대와 달리 여전히 도비시한 BOJ 정책 기조가 자극한 엔저 압력과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안정 노력에도 약세가 지속되는 국면이 원화 동조화 견인하며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미국과 주요국 간 성장세 차별화와 최근 불거진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유로화 약세 흐름으로 인해 달러 강세 흐름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국 무역흑자 기조 지속에도 고회율 장기화 우려 속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와 해외투자 목적의 달러 수요 등이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운데 외환당국 경계감이 상단 제한할 요인

 - 무역수지 흑자 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는 원화 강세 요인이나, 고회율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원화 강세 희석이 예상
 -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증액과 한일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 환율 급등 이후 강화된 당국 개입 경계감에 따른 1,400원 부근 상단 인식은 원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일부 연준 위원의 매파적 커뮤니케이션 유럽 정국 불안과 아시아 통화 가치 절하 등 주요 통화 약세와 강달러 지지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원 부근에서의 외환당국 개입 경계심리 강화 우리나라 수출 개선세 지속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6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7.9
6월 엔/원 평균환율 : 873.4

7월 엔/원 예상범위 : 845-865원

미국 더딘 인플레이션 감소 영향 속 최근 일본 통화당국 긴축에 따른 내수 부진 등 경제 모멘텀 약화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할 전망이나 급격한 통화절하에 대한 개입 경계감이 다소 약세 제한 요인이나 그 영향을 미미할 전망

- (엔화 동향) 미국 제조업황 위축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미 국채금리 급락에 엔화는 강세 출발했으나 타이트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위축으로 되돌림 시현. 중반, 6월 BOI 금정위에서의 긴축 시그널 부재로 인한 실망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BOI 총재가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약세 압력 지속. 후반,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의 연이은 구두개입에도 시장 내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161엔선 돌파하는 등 약세 흐름 속 마감
- (엔/원 전망) 최근 미국 물가 감소 추세에도 연준 위원들 매파 영향 반영은 엔화 약세에 주요하게 영향 전망. 여기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파급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측면 등이 BOI 추가 긴축 가능성을 상쇄하는 점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이러한 상기 대내외 엔화 약세 지속 요인 우위 속에 추가 약세 방어를 위한 외환당국 매도 실개입 효과 또한 다소 제약적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엔화는 160엔을 소폭 상회할 전망
- 최근 미 물가 감소에도 매파 기초의 연준 성향이 달러 강세 견인할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로 내수 등 경제부문 부정적 파급 영향이 BOI 추가 긴축 의지를 상쇄시키는 측면 또한 엔화 약세 견인할 전망
- 상기 대내외 엔화 지속 요인 우위 속 추가 약세 방어를 위한 BOI의 실개입 효과 또한 제한적일 전망에 엔화는 160엔 소폭 상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원 환율은 850원대 전후 등락이 예상

유로/원 전망

6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761
6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84.6

7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5~1,485원

유로 경제의 더딘 회복 국면을 반영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프랑스 총선 관련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 유로화의 전반적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로화 동향) ECB의 금리인하 결정에도 시장 내 선반영 측면과 추가 완화 관련 신중한 스탠스에 제한적 약세 보였으나,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연준 피벗 지연 경계감 속 큰 폭 약세 시현. 이어 프랑스 등 유럽 정치 리스크 고조와 ECB 대비 매파적인 6월 FOMC 결과에 추가 약세 나타남. 후반, 유로존 PMI 부진 등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부각되는 가운데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의 연내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언급 등 도비시한 기초에 약세 압력 속 마감
- 6월 ECB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추가 인하 가능성 부재인 상황이나 금리 인하 결정 자체 영향 우위 속 유로화는 상방 경직 움직임 예상. 여기에 여전히 경기 모멘텀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7월 초반까지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등이 유로 약세를 전반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
- 6월 ECB 금리인하 단행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에도 경기 회복력이 더딘 측면을 반영한 측면에 대한 인하 기대 모멘텀 지속 등이 전반적인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7월 초반의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등에 따른 유럽 정치 불확실성 상존 등이 유로 경제권내의 금융 및 통화시장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유로/원 환율은 1,470원 전후 등락이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유장] 홍콩(중국 반환 기념일)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역일 오전 2시) 안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미 5월 건설지출(MoM -0.1%) 6월 ISM 제조업, 구매물가, 신규주문, 고용 중 6월 Caixin 제조업 PMI(51.7) 유 6월 HCOB 제조업 PMI[F] 일 2Q 단란 대형/소형 제조업(11, -1) 6월 자본 은행 제조업 PMI[F] 소비자지대지수(36.2)	2 안 6월 CPI(MoM +0.1%, YoY +2.7%) CPI 근원(YoY +2.2%) 미 5월 구인어직보고서 구인건수(8059k) 중 6월 Caixin 서비스업, 종합 PMI(54, 54.1) 유 5월 실업률(6.4%) 6월 CPI(MoM +0.2%, YoY +2.6%) CPI 근원(MoM +0.4%, YoY +2.9%)	3 FOMC 6월 회의록 연준 FOMC 6월 회의록 공개 미 5월 제조업수주, 제조업수주 근원 내구재주문, 내구재주문 근원[F] 6월 ADP취업자 변동(152k) Challenger Job Cuts(YoY -20.3%)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5월 PPI(MoM -1.0%, YoY -5.7%) 6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일 6월 자본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4 영국 조기총선 [유장] 미국(독립기념일) 영국 조기 총선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 임시 조치 성격으로 상계관세 부과하고 하반기 EU 27개국 승인시 5년간 시행 확정 독 5월 공장수주(MoM, -0.2%) 호 5월 수출 (5 미국 고용보고서 미 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272k) 민간부분 고용자수 변동(229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0%)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경제활동 참가율(62.5%) 유 5월 소매판매(MoM -0.5%, YoY +0.0%) 일 5월 가계 소비지출(YoY +0.5%) 선행지수, 동행지수[P]	6
7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8 미 5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7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0.3) 일 5월 실질 임금총액(YoY -0.7%) 6월 경기관찰조사 연명, 전망(45.7, 46.3)	9 NATO 정상회의 (~11) [NATO 회의록의 (~11)] (1) NATO 회원국의 정상과 정부 수반이 정기적으로 동맹 활동 평가하고 전략적 방향 제시 (2)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년 400억달러 지원 하는 장기적 재정 논의 예정 미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0.5) 중 6월 통화공급 M2(YoY +7.0%) 일 6월 통화량 M2(YoY +1.9%) 공작기계수주[P]	10 지준일 안 6월 실업률(2.8%) 미 5월 도매무역 판매 도매재고[F](MoM +0.1%) 중 6월 CPI(YoY +0.3%), PPI(YoY -1.4%) 일 6월 PPI(MoM +0.7%, YoY +2.4%)	11 읍선만기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3.5%로 11차례 연속 동결. 올해 성장률 목표치 2.5%로 0.4%p 상향하고 내년은 2.1%로 0.2%p 마향 미 6월 CPI(MoM +0.0%, YoY +3.3%) CPI 근원(MoM +0.2%, YoY +3.4%)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8%) 일 5월 핵심기계수주(MoM -2.9%, YoY +0.7%)	12 미 6월 PPI(MoM -0.2%, YoY 2.2%) PPI 근원(MoM +0.0%, YoY +2.3%)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망[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중 6월 수출/입(YoY +7.6%, +1.8%) 일 5월 광공업생산[F](MoM -0.9%) 설비가동률(MoM +0.3%)	13
14	15 [유장] 일본(바다의 날) 안 5월 통화공급 M2(MoM +0.4%) 미 7월 뉴욕주 제조업지수(-6.0) 중 2Q GDP(QoQ +1.6%, YoY +5.3%) 6월 신규주택가격, 광공업생산 소매판매(YoY +3.7%), 실업률 (5.0%) 유 5월 산업생산(MoM -0.1%, YoY -3.0%)	16 안 6월 수입 물가(MoM -1.4%, YoY +4.6%) 수출 물가(MoM -0.6%, YoY +7.5%) 미 5월 기업재고(MoM +0.3%) 6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소매판매(MoM +0.1%) 수입 물가(MoM -0.4%, YoY +1.1%) 수출 물가(MoM -0.6%, YoY +0.6%) 일 5월 3차 산업 지수 6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17 미 6월 주택착공건수(1,277M, MoM -5.5%) 건축허가(1,386M, MoM -3.8%)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78.7%) 제조업 생산(MoM +0.9%) 유 6월 CPI[F](MoM +0.2%, YoY +2.6%) CPI 근원[F](MoM +0.4%, YoY +2.9%) 영 6월 CPI (MoM, 0.3%), YoY, 2.0%)	일 6월 국내, 전국 CPI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25%로 25bp 인하. 물가 상승률 완화에 연준보다 먼저 피벗 단행 미 6월 선행지수 7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유 5월 건설 생산(MoM -0.19%) 일 6월 수출/입(YoY +13.5%, +9.5%)	19 일 6월 국내, 전국 CPI 영 6월 소매판매(MoM, 2.9%) 소매판매(YoY, 1.3%)	20
21	22 안 7월 1~20일 수출/입(YoY +8.5%, +0.6%) 미 6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23 안 6월 PPI(MoM +0.1%, YoY +2.3%) 미 6월 기준주택매매(MoM -0.7%) 7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망 유 7월 소비자지대지수[P]	24 안 7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6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신규주택매매 7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유 7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7월 자본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P] 독 8월 GfK 소비자지대지수 (-21.8)	25 안 2Q GDP 8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2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 6월 내구재 주문[P] 7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유 6월 ECB 1년, 3년 CPI 기대 일 6월 PPI 서비스	26 2024 파리 올림픽(~8/11) 미 6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실질 개인소비 PCE 디플레이터, PCE 디플레이터 근원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망[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5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7월 도쿄 CPI, CPI 근원	27
28	29 안 6월 소매판매, 백화점, 할인점 매출 미 7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30 미국FOMC, BOJ금정위(~31) [미국 FOMC(~31)] (1) 지난 회의에서 5.25~5.50%로 7회 연속 동결 하고 24년 정도도 중간값 4.6%→5.1% 상향 (2) 연준은 정도표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 시사 했으나 시장은 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 BOJ 금융정책위원회(~31)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0.1% 유지. 이번 회의에서 BOJ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 미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31 안 6월 광공업생산 미 2Q 고용비용지수 6월 미경 주택매매 7월 ADP 취업자 변동 MNI 시카고 PMI 중 7월 종합, 비제조업, 종합 PMI 유 7월 CPI, CPI 근원[P] 일 6월 광공업생산[P]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7월 소비자지대지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